



5면

삼유천재해복구공사 현장 관리감독 '허술'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음 4월 13일) 제301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와 14개 시군 지체단체장 후보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가운데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대통합 · 혁신으로 압도적 승리”

민주 전북도당 선거대책위 출범식

김성주 도당위원장 “이번 지선은 매우 중요 이겨야만이 국가·민주주의 지켜낼 수 있어”

김관영 도지사 후보 “14개 시군 모든 후보들이 승리 위해 전심전력... 관심·애정 보여달라”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12일 메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6월 1일 본선 승리를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선대위 출범식에는 김성주 김운덕 한병도 이원택 윤준병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두재균 과병신 문택규 서동석 유창희 이병학 임정연 조지훈 김병곤 김영배 김용화 김호서 김희수 최진호 공동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

또한, 장영달 최락도 김광수 고문과 정진 총괄부도장 선대위원들이 참석했으며민주당 광역·기초의원, 도당 관계자 지지자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진형석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운덕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과 김성주 도당위원장의 출범사가 진행됐다.

김성주 도당위원장 겸 상임선대위원

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의 ‘새로운 전북시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며 “오늘이 지리는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

다.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북의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전북이 승리해야만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출범사에 이어 김관영 후보에게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로 운동화를 전달했다.

김관영 후보는 “도지사 후보로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한 14개 시·군의 모든 후보자들의 승리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공식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와 경쟁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무주, 웰빙약용작물 천마 생산 국내 핵심지”

송하진 도지사, 천마클러스터 등 현장 행정

도내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3단계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살펴

며, 그동안 성과와 발전 전략을 직접 확인했다. (관련사건 3면) 송 지사는 12일 국내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 천마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여환호 무주 천마산업단지로부터 천마클러스터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통해 무주군이 국내 천마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집중 육성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천마는 국립 산림과학원 등이 분석한 성분 결과, 혈관 건강 개선, 중풍 예방, 항암 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가스트로딘’ 함량이 가장 많으며 간질이나 심장발작, 폐암 등에 효과가 있는 ‘바닐리 알룰’, 노화를 억제하는 ‘에르고티오닌’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특용작물이다.

그러나 천마는 수분과 온도를 맞추기 어렵고 파종량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아 ‘하늘에서 내리는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재배하기가 까다롭다.

이에, 무주군은 천마산업 추진 초기부터 천마 재배 표준 매뉴얼 제작, 천마 생산 농가 역량강화 교

육, 천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오며 지난 2013년에는 무주 천마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무주군은 천마 클러스터 육성 3단계 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전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등 모두 90억 원을 투자해 통합 브랜드 관리 및 전략수립,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생산 및 유통기반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R&D 확대, 문화관광 연계 강화, 산업화 및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식품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부권 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단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천마는 예로부터 ‘산삼은 나뉘워도 천마는 못 나뉘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약용작물”이라며 “앞으로도 무주가 국내 천마 생산 및 가공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무주군과 천마 사업단에서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지사는 무주읍에 소재한 무주향토산 산림복지단지 계획현장도 찾아 치유의 숲 조성 등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무주=전문선거자

전북도가 일자리 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김제시·임실군’, 우수 시·군으로 ‘익산시·무주군’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12일 시상식을 갖고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에 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김제시와 임실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7,500만

도 일자리정책 김제·임실 ‘최우수’, 익산·무주 ‘우수’

고용안전 선제대응패키지·정책 협업 구축 등서 높이 평가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우수 시·군 선정·포상으로 시·군 직원 사기 진작과 함께, 일자리 사업추진의 동기를 부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일자리정책 우수 시·군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군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우수로 수상한 김제시는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고용안전 선제대응패키지 추진으로 지역 위기근로자 지원 등 고용안전 추진체계를 확립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주요 일자리 사업의 꾸준한 추진상황 점검과 현장 간담회 추진으로 개선점 마련 등 사업 내실화를 이룬 노력이 눈길을 끌었다.

또, 임실군은 고용을 상승과 구직자 등록 증가 등 주요지표 개선이 두각을 보였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일자리정책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계획-실행-평가 추진체계를 확립, 일자리 창출효과를 한층 높인 점에 우수한 평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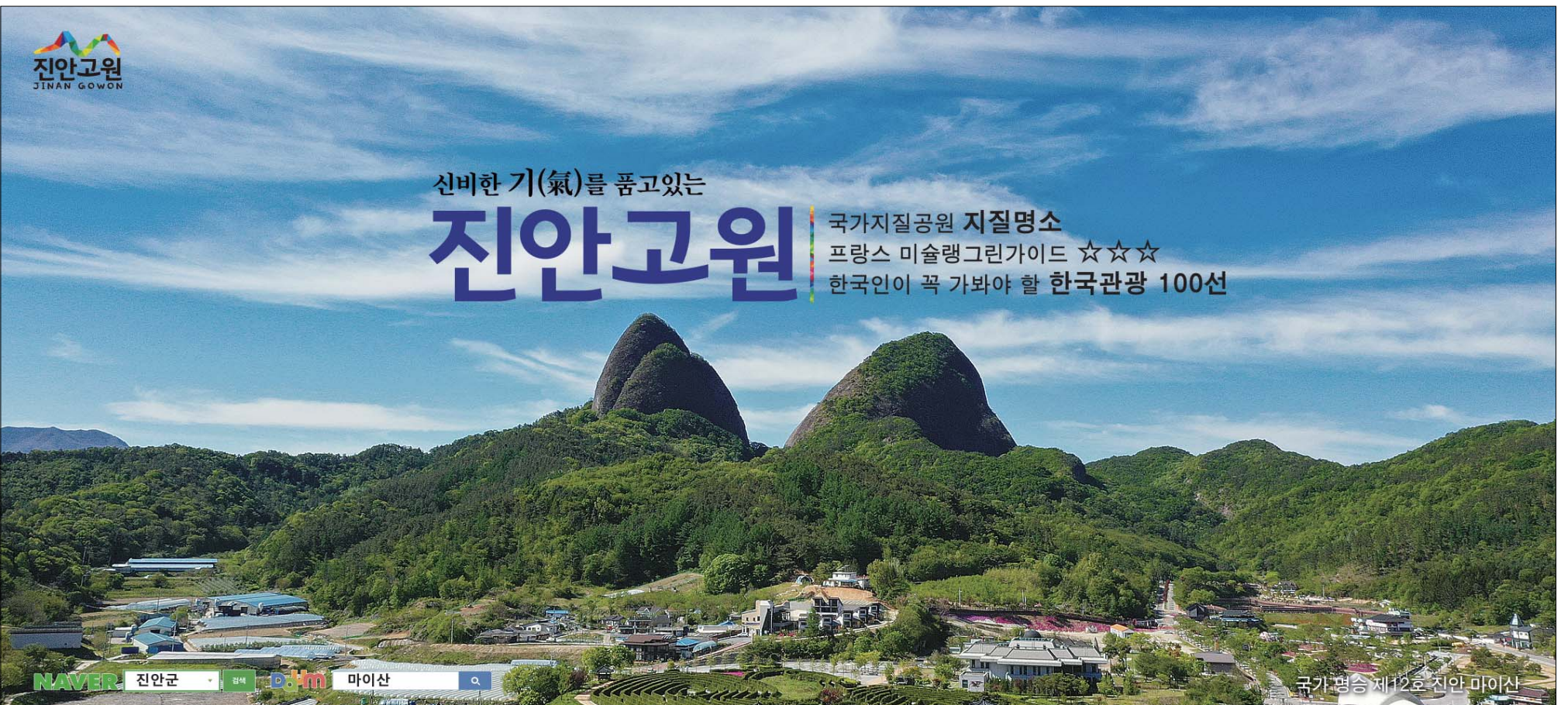
받았다. 아울러,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을 임차료 경감 및 현장 지원단을 구축해 관내 청년 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익산시는 중앙정부와 도 일자리 공모사업 최다 선정(17개사업, 144억원)을 이룬 성과가 있었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치와 홀로그림 등 지역 신산업 기업 유치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 두각을 나타냈다. 무주군은 ‘무주군 로컬 Job센터’를

통해 지역에 취업상담·알선, 취업역량강화교육, 채용대행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1,108명의 취업연계 성과를 거둔 점이 이목을 끌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우수 시·군 선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타 시·군에 공유해 지역 일자리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진안고원 JINAN GORYEO

신비한 기(氣)를 품고있는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지질명소
프랑스 미술랭그린가이드 ☆☆☆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NAVER

진안군

지역

D+M

마이산

마이산

국가 명승 제12호 진안 마이산